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만전

무주군, 농번기 필요인력 확보·공급으로 적기영농·소득 증대 등 기대

지난 2월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지역단위 운영)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던 무주군이 5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은 2019년부터 필리핀(실랑시)과 네덜(두르츠시), 베트남(까미우성) 등지와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인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이하 공공형 계절근로)'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무주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연간 100명 이내로 군에서는 공공형 운영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공공형 운영주체에서는 농가 일손공급과 근로자 급여지급(농가와 사후 정산)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근로자들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일당 9만 원) 8시간을 일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형 외에도 농가 직접 운영을 통해 올해 현장에 투입되는 계절근로자 수는 2백여 명으로, 무주군은 총 사업비 9억여 원의 들어 공공형과 농가형 근로자(공공형

100명, 농가 229명)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인건비, 임상병리 검사료, 공항인솔 차량비,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비 등 계절근로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차로 오는 5월 초에 네 팔에서 160명이 들어오는 계획이 서 있다"면서 "그간 많이 기다리고 힘들었던 만큼 모든 절차가 진행이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필요한 농가에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번기 필요인력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일손은 보태고 적기영농은 가능해져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임금인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월 31일까지 사업 접수

장수군이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인구 수에 따른 읍면 배분을 통해 7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색사업 인센티브제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해 특색사업을 제안한 읍·면에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특색사업 인센티브제 시행을 최초로 시작한 지난해에는 관광 활성화 사업인 산서면의 문화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채택됐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이 있는 거리조성 사업은 산서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안도현 시인의

산서면과 관련한 시비 설치, 관광 일간관 설치, 거리환경 개선이 포함된 사업으로 산서면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은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사업제안과 의견제시의 편리성 증진 및 접근성향상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7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게시판은 4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대표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라북도 사회조사 실시

진안군은 오는 12일부터 27일 까지 각종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202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회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해 지역 정책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810개 가구 중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이다.

조사는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등 5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각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를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말 전라북도 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현안사업 해결 위한 국비 확보 총력

김희욱 부군수, 환경부·행정안전부 방문해 지원 건의

무주군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은 7일 김희욱 부군수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각각 방문해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욱 부군수는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국비 80억)과 무주군 노후하수

관로 개량사업(3단계) 등 하수도분야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철연선(중산~용추)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 ▲제설장비 보관창고 건설사업 ▲삼유천 재해복구사업(고방~하비) 등 지역 내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수요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

삼유천 재해복구사업(고방~하비)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지구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희욱 부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성과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갖추고 국가예산 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희욱 부군수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각각 방문해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무주군, 민선7기 공약이행율 92% 달성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서 2년 연속 A등급 받아

무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시행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목표로 한 민선7기 무주군의 공약은 관광, 농업, 복지, 개발, 행정 등 5개 분야 총 77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92%의 공약이행율을 달성했다.

이중 완료된 공약은 치매안심마을 조성,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등 24개,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반값 농기계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어르신 이·미용 지원 등 28개이다.

이외에도 정상추진은 글로벌 무주 태권시도시 조성,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 18개, 일부 추진은 5개, 미 추진은 2개로 분석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역과 군민을 위해 헌찬 여정을 이어왔던 민선7기 무주군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민선7기 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시급 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결과는 매니페스토본부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 1차 평가와 자료보완을 통한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집계됐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1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로 평가결과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이행완료율은 7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투자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7일 군청 강당에서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구활력추진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안군 인구활력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모두 함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진안'을 비

전으로 삼고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설정해 인구현황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토대로 시책발굴 및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보고회에 이어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대한 심사도 함께 추진됐다. 군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내

용은 향후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군은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5월 초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컨설팅 등을 거쳐 5월안에 최종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준열 진안군수 예비후보 사퇴

조준열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7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안군수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이 후보를 사퇴할 것을 강력히 원해 가족들 의견에 따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군의원도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원으로만 남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춘성 군수는 경선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민주당 단일 후보가 가능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